

나주시, 공중화장실 48개소 '도로명 주소' 생긴다



단독 건물로 설치되어 있지만 주소가 없는 나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편의·안전성 향상 내달 말까지 번호판 부착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 가능해져

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다. 나주시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내 공중·개방

화장실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내달 말까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과거 공중화장실은 위치를 표시할 때 해당 위치의 지번 또는 인근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유사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화장실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로 이번 도로명주소

가 부여됨으로서 휴대전화 위치 검색 등을 통한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소가 없는 주요 시설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여주 이용 음식 대중화 본격 추진한다

지원 외식 업체 6곳 선정

화순군이 여주 음식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화순군은 여주 이용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지역 외식업체 6곳을 선정, 간판과 현판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 요리 음식점 선정 간판 지원 업체는 화순읍 소재 ▲독순이아구찜(여주 아구찜) ▲개미가든(여주 닭백숙과 여주 오리주물럭)이다. 현판 지원 업체는 ▲손맛이정말좋아(여주 월남쌈과 여주 양탕) ▲구지가(여주 활용 나물류) ▲태운숯불구이(여주 한방돼지갈비) ▲제주흑돈촌(여주 능이버섯백숙)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치유도시 화순' 이미지를 제고와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지난 10월 지역 외식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여주 개발 요리 전수교육을 운영하는 등 여주를 활용한 음식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주 요리 대중화에 의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서류심사, 식미 평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여주 요리 음식점을 선정했다.

화순 요리 음식점은 여주 식당 간판, 여주 효능 안내판, 여주 요리 책자, 음식점 소개 등 홍보를 지원하며 계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 음식점에 선정된 한 식당 관계자는 "여주는 특유의 쓴맛 때문에 먹거리로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몸에 좋은 여주를 음식에 활용할 방법을 알려주는 전수교육을 통해 메뉴를 기획할 수 있었다"며 "여주를 활용한 우리 식당만의 메뉴를 개발해 화순 대표 치유음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주를 활용한 요리가 화순 대표 치유음식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까지 개발된 요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를 발굴, 상품화해 지역의 새로운 대표 먹거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

2년 연속 상위권...전년도 대비 내부청렴도 1등급 상승

담양군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담양군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와 같이 2등급을 유지했으며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담양군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공직윤리를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교육을 추진했으며 청백 e-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청렴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스스로 청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감사,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렴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극 행정을 실천으로 깨닫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코로나19 대응 방역 동참 캠페인

구례군은 8일 구례 5일시장 일원에서 군 관계공무원, 안전보안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음에도 전국적 대유행 양상으로 치닫하고 있는 확산세에 대비해 군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군 공무원과 안전보안관은 시장 내 상인 및 군민들에게 흥

분용품(마스크, 핫팩) 배부를 통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생활 방역수칙 준수로 연말을 앞두고 군민들의 안전한 긴장감을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구례군 관계자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고 이번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강력한 방역활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논 이모작 직불금 5억4000여만 원 1차 지급 대상 면적 1081ha 715 농가

화순군은 12월 초순에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5억4000여만 원을 1차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 면적은 1081ha고 715 농가에 지급된다. 점수대기 건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는 대량검증과 시스템 등록을 거쳐 12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동계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고, 밭 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선택 직불금으로 분리되어 별도 운영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화순군청 농업정책과(☎061-379-367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공공비축미곡 4802톤 매입 완료

곡성군이 지난 10월 5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총 4802톤의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매입을 8일 완료했다.

38회에 걸쳐 진행된 매입을 통해 곡성군은 산물벼 400톤, 건조벼 4,359톤, 친환경 벼 43톤을 사들였다. 이는 작년 4,403톤보다 9.1% 증가한 매입 물량으로, 올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한 것이다.

곡성군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40kg 가마당 3만원의 우선 지급했다. 차액은 이달 27일경 최종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연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매입현장을 방문해 "수해와 태풍, 코로나19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귀중한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행정 경험도 쌓고, 학비도 벌고"

장성군이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인원은 총 60명이다.

대학생 행정체험은 종전에 실시됐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업이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록을 둔, 만 29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대학 재학생이다. 사회배려계층을 우선 채용한 후, 나머지 인원은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장성군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환경개선 활동, 현장 근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